월요광장

인사의 품격

정유진
코리아컨설턴트 대표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장소를 이동하며 인사를 주고받을 기회를 갖는다. 일터나 학교처럼 익숙한 공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 받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공공장소처럼 열린 공간을 비롯해 공동주택의 승강기나 택시 안 등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까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인사를 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요즘 아이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싫어한다는 건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고 직장 내에서 인사 잘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인사 얘기를 꺼내자 마자 꼰대란 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던 우리 나라가 어쩌다 인사란 시대에 뒤처지는 피곤하고 불편한 관습으로 통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코로나 펜데믹의 여파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한몫을 하면서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사예절이 전과는 달라졌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웃 나라 일본은 여전히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디지털화된 결재난에서 조차 직위의 차등에 따라 다른 각도로 목례하듯 도장을 눕혀 날인하는 걸 보면 역시 못말리는 일본이다 싶다. 인사를 비롯한 예절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디서나 아이들을 교육하며 누구에게나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솔선수범하는 면은 과히 놀랍다.

근래 도쿄 외곽의 한 작은 상점에서 유리 그릇을 몇 개 사고 계산을 했다. 보통 계산을 하고 나면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물건값을 치른 포장백을 받는다. 하지만 그 작은 가게는 달랐다. 계산을 마쳤는데도 젊은 판매자는 포장한 상품이 담긴 종이백을 도통 넘겨 주질 않았다. 정중하게 두 손으로 출입문 쪽으로 길을 안내한 뒤 상점 밖에 나가서야 가방을 건네 주었다. 그리곤 4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절을 했다.

누군가는 이 인사가 다소 지나치다며 그저 장사하는 솜씨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를 받으면 우리는 절로 그 인사의 진심과 품격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몸이 저절로 반응하며 거울에 비춰 반사하듯 답례하게 된다. 이 경험은 불과 잠깐이었지만 큰 여운으로 남았다. 나중에 일본인 친구를 통해 안 사실은 그 인사가 '사이케이레이'라는 일본의 여러 인사법 중 하나로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하거나 사죄할 때 하는 인사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으레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을 다녀온 탓인지 요 근래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가 인사성이다. 식당이며 상점 등 어디 서고 줄어든 인사 탓에 불친절함을 경험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색하고 무색함을 느끼는 순간을 자주 맞닥트린다. 심지어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조차 실례가 아닌지 망설이다 웬만하면 눈 마주침은 피하고 슬쩍 인사를 생략하기가 일쑤다.

인류는 역사가 기록되기 오래 전부터 인사를 해왔다. 어느 문화권이고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인사를 건네는 곳은 없다. 애당초 생존과 안전을 담보 받기 위해 시작되었을 인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를 꾀하며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담은 문화적 행동양식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를 드러내는 태도다.

근대 자유주의의 선구자이며 16세기 문화사상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라스무스는 그의 말년에 '소년들의 예절론'을 집필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해는 1530년이지만 오늘날에까지 서양 예절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다. 그는 책을 통해 기품이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이 곧장 알아보기 마련이며 내면이 드러나는 몸가짐으로써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예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건네는 인사는 누구라도 그 품격을 알아보기 마련이다. 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로하고 불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호의를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받는 이는 답례해야 한다. 간단하게 목례를 하거나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불과 몇 초간의 짧은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인사를 나누며 환대하는 그 순간 결국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이로써 서로의 세상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수필의 향기

어느 날의 쇼핑 일기

김향남
수필가

두부, 호박, 양파, 버섯, 우유, 바나나, 자두, 그리고 스카프.

오늘의 소비 목록이다. 두부와 호박 등의 먹거리는 가족의 저녁을 위하여, 스카프는 오직 '나'를 위하여 구매한 것이다. 먹거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니 빼놓을 수 없다고 해도, 스카프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내 옷장에는 얇거나 두껍거나 길거나 짧은 스카프들이 색색이 층을 이루고 있는 데다, 또 다른 스카프가 '급하게' 혹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신경회로는 이미 어떤 강력한 자극에 이끌려 있었다. 문득 눈에 띈 노출 광고 한 컷. 목하 마감날이 다 된 원고를 팽개치고 나도 모르게 낚여 들고 있었다.

오우, 예쁘다. 멋스럽고.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일시에 마음이 흔들렸다. 가격이 좀 비싸면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 해요? 죽어라 일만 하면 뭐 하냐구요. 이건 결코 낭비라 할 수 없어요. 아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사두시라니까요. 속삭이는 소리도 더욱 은밀해졌다. 누군가 자꾸 종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어쩐지 나를 위한 훈수거나 보상처럼도 느껴졌다. 그 말마따나 망설일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이리저리 재보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과감히 구매하기를 눌렀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한데, 이 야릇한 기분은 뭐지?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불안하기도 하다.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낯선 느낌이 든다. 혹시 그 지름신? 잠시 정적이 흐른다. 그 순간 번뜩 짚이는 게 있었다. 이미 저질러 놓고야 알다니. 사실 알았다고 해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훈수는 건건이 옳은 말씀이기도 했거니와 특히나 '잘 어울린다'는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힘이 셌다. '지난번에 산 원피스는 목 부분이 너무 파인 게 좀 걸렸는데, 오호! 저 스카프 하나 두르면 완전 어울리겠어.' 살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을 '지름신'이 나서서 깔끔하게 '질러' 주었던 거다. 역시나 그의 위력은 결정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데서 결정적으로 빛이 났다.

세상에는 참 많은 신(神)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존재는 '지름신'이 분명하다. '지름신'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충동적 구매가 제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신에 불과하지만(사실은 억지로 만들어낸 신조어일 뿐이지만), 소비의 영도자로 추앙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영역은 나날이 확장되고 강림의 빈도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주변의 크고 작은 상점뿐 아니라 쿠팡이나 아마존, 알리, 테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은 '지름신'의 전능이 전방위적으로 시전되는 장소다. 세계의 모든 물건을 한곳에 모아놓고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는 기상천외한 기술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식해 놓았으니, '낚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지름신'은 이제 '돈신', '물신'과 더불어 우리의 머릿속뿐 아니라 손끝 발끝까지도 장악한 채 득의의 미소를 짓고 있다.

문제는 늘 사후에 일어난다. 하지만 그는 사후의 일은 안중에도 없다. '지름'의 순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만 하지 그에 대한 책임은 시종 모르쇠로 일관한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누락시키는 것 같기도 하다. 달콤하고 은밀하게 오직 '지르게'하는 것만 조준할 뿐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남은 뒷감당은 전적으로 '지른' 자의 몫이다. 사고 싶은 걸 샀으니 이제부턴 자네가 알아서 하게나. 하하. 허공 가득히 공허한 웃음만 흘려놓을 뿐이다.

물론 모든 소비가 번번이 후회로 남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것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은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감 같은 것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것은 화폐와 교환된 일개 상품이 아니라 '나'와 새롭게 관계 맺은 생기 가득한 물질로서 기쁨과 슬픔, 사랑, 고뇌, 추억, 아픔 등의 모든 정감과 정동이 스며든 인간적 관계를 형성한다. 개성 있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삶에 활력을 부여한다. 손때 묻은 가방은 내밀한 개인사의 기록이며, 오래 묵어 낡은 것들은 끝없는 이야기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내일이나 모레쯤 구매한 스카프가 도착할 것이다. 화사한 색감은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밋밋한 목선을 맵시 있게 살려줄 것이며, 체온처럼 따스한 보호벽이 되어줄 것이다. 언박싱의 순간이 은근히 기대된다.

거봐, 지르길 잘했지? 저만치서 '지름신'이 웃고 있다.

기 고

기상이변이 파생시킨 신조어

박남규
밀알중앙회 강사랑환경대학 강사

요즘 때 이른 폭염으로 유례없는 불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내륙을 중심으로 국내 92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전국이 폭염에 몸살을 앓았다. 이날 광주의 기온도 37.2℃까지 오르며 종전 6월 최고기온 최고치인 36.7℃를 66년 만에 갈아치웠다고 한다. 이런 불볕 더위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중국 허난성이 41.7℃를 기록하는 등 지표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펄펄 끓고있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또 이집트 등 아프리카 북부를 덮친 온난 기단의 영향력이 그리스 등 남부 유럽까지 번지면서 아테네 신전 등 유명 관광지가 운영을 중단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무더위는 단순히 덥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이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최근 들어 지진, 가뭄,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기후'와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기후 위기를 좀 더 실감할 수 있다.

첫째, '기후 우울증(Climate Depression)'은 2017년 미국심리학회에 의해 제시된 용어로, 기후변화로 인해 불안과 우울함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무력감을 전제로 해 단순히 우중충한 날씨 등으로 인해 느끼는 우울함과는 다르다. 이는 공식적인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아니며 '기후불안(Climate?Anxiety)', '환경적 비애(Environmental Grief)' 등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둘째, '기후비용(Climate Cost)'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실제로 커피,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쇱사과, 대파 등이 극한기후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셋째, '기후 소송(Climate Suit)'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소송이다. 대표적인 기후소송으로 '위르헨다(Urgenda) 판결'이 있다. 이는 네덜란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2013년 내건 소송이다. 이에 2019년 네덜란드 법원은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5% 상당 감소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했다"며 "당시에도 2030년 목표가 도전적이라고들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는 '기후파업'은 2015년 11월 파리기후변화회의 개막일 처음으로 열렸고, 이후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의해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됐다.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했다. 시계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년 91일"이라고 알려줬다. 이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직장인은 먹고 살기 바쁘고, 기업은 살아남기 바쁘다. 흘러가는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행동 없는 고민'은 '기후 우울증'으로 옮겨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급속히 악화하는 기후변화가 불안·우울증·자살 등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기후 리스크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울해하거나 비관하는 대신 지금부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흔히 알고있는 방법으로 환경을 지키는 작은 노력을 불볕 더위이지만 땀 흘려가며 해보자.

社說

특화단지 유치 화순, 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화순군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화순이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모두 5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화순은 백신 생산 및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는 2.4㎢(73만평) 규모로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백신산업특구 내에 조성한다. 화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신, 면역, 헬스케어, 미생물의 전임상-임상-인증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2년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을 시작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헬스케어 연구소와 동물대체시험센터, 전남대병원 의생물연구원 등 전문 기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연구 인프라를 갖춘 것이 22년만에 특화단지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화순군은 2010년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됐는데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바이오산업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지역에서만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이 화순에 투자하기 위해 백신·면역치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화순은 나아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이뤄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가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야심찬 계획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지역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감자 생산 급감, 온난화에 강한 품종 개발해야

전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감자 생산량을 자랑하는데, 수년 새 생산량이 줄어 3년여 만에 40%나 급감했다고 한다. 생산량 감소의 이유가 감자의 주요 품종이 고온의 날씨에 취약한 탓이라고 한다. 강원도에 이어 감자 생산량이 두번째로 많은 전남 농가들이 기후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 감자생산량은 2019년 8만 8353t에서 2020년 5만 8409t으로 떨어졌고, 2021년과 2022년에도 5만t대를 유지중이다. 특히 봄감자 생산량이 전국 최고인 보성 농가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광주도 2019년 961t 생산된 감자가 2022년에는 381t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전남 감자 농가와 전문가들은 감자 품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미감자'가 고온을 견디지 못한 탓에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어떤 농작물이든 기르기 쉽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선호한다. 하지만 생산량에 초점을 둔 한가지 품종의 선택은 통제할 수 없는 농업적 재앙을 가져오기도 한다. 19세기 후반 아일랜드에서도 사실상 한 품종의 감자만을 심었다가 곰팡이균에 의해 나라 전체의 감자가 썩는 바람에 대기근으로 200만명이 숨지기도 했다. 바나나도 수십 년전에는 그로미셸이라는 품종이 대세였으나 곰팡이균으로 사라지면서, 현재는 캐빈디시라는 품종이 태반을 이룬다. 이 때문에 자칫 곰팡이균에 캐빈디시 품종이 사라질 경우 바나나도 멸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이 주로 키우는 감자는 미국에서 개량된 '수미감자'라는 흰감자이다. 이 감자는 키우기 쉬워 생산량이 많지만 생육 초기 저온의 기후조건이 필요한데, 지구 온난화로 환경이 나빠진 것이다. 전남지역 기후와 땅에 맞는 다양한 감자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無等鼓

마한의 소도

3세기에 편찬된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는 마한(馬韓) 풍속을 전하는 기록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天神)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天君)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別邑)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蘇塗)라 한다.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그 지역으로 도망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므로 도적질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경기·충청·광주·전남지역에 존재했던 마한 54국의 소도에 관한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소도를 신전 기능을 했거나 제의를 치렀던 공간으로 해석한다.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솟대의 기원을 소도에 세웠던 큰 나무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해남군 북일면 거칠마 토성에서 삼국지 기록을 떠올리게 하는 제의 공간이 확인됐다. 토성 정상부 제단에서는 지름 110㎝, 깊이 90㎝에 달하는 대형 기둥 구멍이 드러났고, 철제 방울이 출토됐다. 조사단은 유적의 중심 연대가 5~6세기인 점을 고려해 소도의 발전된 형태로 보고 있다. 해남이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고대 세력이 오가던 서남해 해양항로의 거점이어서 해양 의례를 지냈던 공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주시 자미산성 북쪽 하늘봉에서도 최근 제단과 건물지 한 동, 토기류가 발굴됐다. 제단은 돌로 둘러싼 토단형태로, 제의와 관련된 나무 기둥 흔적도 발견됐다. 토단 주변에서는 삼국시대 옹관편과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고려시대 청동방울 등이 출토됐다. 유물로 미뤄 마한 시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제사를 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칠마 토성의 제의 공간은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비를 받아 진행된 학술 발굴조사 성과다. 나주 자미산 유적도 전남도 마한유적 학술조사 지원사업으로 발굴이 추진됐다. 전남 자치단체는 2020년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앞다퉈 유적 발굴, 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도 동구 운림동 석실고분군, 성촌 토성지 등 발굴·보존해야할 유적이 적지 않다. 지자체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